



내장상동, 현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설명회

정읍시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10월까지 '현장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며 관내 37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 사업과 기초 건강 관리 방법, 등에서 추진하는 복지 특화 사업 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많은 주민이 복지 서비스의 존재는 알지만 구체적인 혜택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보건·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민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생활 속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장상동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복지와 건강에 대해 능동적인 관심을 갖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죽항동, 뽕송뽕송 이불 빨래 서비스 운영

남원시 죽항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올 4월부터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세탁물을 세탁해 주는 '뽕송 뽕송 사랑의 이불 빨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피가 커서 가정 내 세탁이 어렵거나,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위생 관리에 취약한 가구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특히 봄철 환절기를 맞아 겨울철 사용했던 두꺼운 솜이불과 오염된 침구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대상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이불 수거 △세탁 및 건조 △배달된 가구로의 재배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단순히 빨래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살펴봐 따뜻한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유관기관과 합동 도상훈련 실시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지난 22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기관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 화재 및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고창경찰서, 고창보건소, 고창병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역할과 협업체계 점검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상황 전파 △초기 대응 △긴급구조요청 운영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지원 지원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을 토의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고창소방서는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호원사회봉사단,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앞장

군산시자원봉사센터-호원사회봉사단, 지역사회 연계 봉사 활성 위한 협약 체결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는 23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세미나실에서 호원대학교 호원사회봉사단(단장 서충길)과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대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 학생들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호원사회봉사단은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교내 홍보, 행정 지원, 출결 인정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호원사회봉사단은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충길 호원사회봉사단 단장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었다"라며 "재난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단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송천규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더해져 군산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특히 재난 대응 분야의 협력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력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계화면 지사협, 90세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추진

부안군 계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계화면에 올해 90세를 맞이하신 1936년생 어르신들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해부터 특화사업으로 진행되어 협의체 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아흔 번째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 정서적 위안을 드리하고자 마련했다.

계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남원소방서는 지난 22일, 재난 현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출동 환경 개선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민들의 소방차 양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 특히,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남원여객 관계자 2명이 소방차에 직접 탑승하는 '동승 체험'이 함께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훈련에는 남원소방서 현장대응단을 비롯해 식정센터, 인월센터, 119구조대가 참여했으며, 지휘차와 펌프차, 구급차, 사다리차, 구조차 등이 남원의료원~공설시장, 신촌교차로~인월시장 등 관내 주요 상습 정체 구간 2곳을 실제 주행했으며, 훈련 종료 후 공설시장과 인월시장 일대에서 소방공무원 15명 여성이용소방대원 20명 등이 참여해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진 농어촌공, 전북지역 안전 영농 기원 백과 통수식 개최

동진지사, 백과제 통해 안전영농 본격 지원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고광돈)는 23일, 전북 지역 백과 통수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수 사업을 시작하며 관내 영농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통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우수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풍년 농사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백과제는 동진지사에서 시행하는 매년 낙양보의 수문을 열어 김제, 정읍, 부안 지역 일대 3만3,177ha의 농지에 우수를 공급하는 행사로 1927년부터 100주년 행사로 동진지역의 광활한 농경지에 생명수를 공급해 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수식이다.

동진지사는 이번 통수를 앞두고 백과제와 연계된 주요 수로 및 양수장 점검을 철저히 마쳤으며, 안정적인 우수 확보와 효율적인 급수를 위한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근 농가들이 불 걱정 없이 제때 모내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동진지사는 2026년 국회의원, 농식품부, 김제시와 적극 소통해 신규 착수지구 305억원 뿐만 아니라 농지은행, 농어촌공간개발, 친환경영농수관리등으로 1,492억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스마트 제어시스템 도입과 현장 중심의 급수 지원 활동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와 농업환경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양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3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경찰서, 협력단체 치안정책 소통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에서는 23일 정읍경찰서 4층 내장산 홀에서 협력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발전협의회, 자율방범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8개 경찰 협력단체 대표 및 임원진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6년도 정읍경찰서 추진할 치안 정책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시민들의 관점에서 경찰에게 바라는 치안 사항들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치안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